다산포럼

독해야 살아남는 세상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자정이 넘으면 5분, 10분 간격으로 경찰이 잠자는 이를 깨우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며, 신문과 포스터 쪼가리들을 담요 삼아 추위를 견디던 매춘부는 새벽이 오면 차 한 잔과 담배 한 가치를 위해 몸을 판다…" 조지 오웰이 그린 런던 트라팔가 광장의 밤 풍경이다. 대공황 직후, 어디서나 궁핍이 파스텔 번지듯 묻어나던 시절이었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런던은 변함없이 분주하고 복잡했다. 갈수록 영악해지는 도시의 상업적 활기 때문일 것이다. 오웰이 노숙자로 밤을 새우던 트라팔가의 악사들과 보도블록의 화가들은 예외 없이 걸인이었다. 구걸행위가 아직 범죄였던 때, 그들은 불협화음의 가락을 되는대로 읊조리거나, 제멋대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보도블록 위에 무언가 그리(는 척하)며 예술가 행세를 했다.

하지만 오늘날 런던의 걸인들은 세련되고 당당하다. 정규직과 프로의 무대에서 밀려났을 법한 연주자, 화가, 연기자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반면, 빈손 외에 아무 내놓을 것 없는 '전통적' 걸인들은 그 수도 훨씬 늘었고, 구걸행위마저 전문화, 상업화, 계층화되면서 이제 궁핍은 그들에게 더욱 잔인한 형벌이 돼가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집권당은 수치를 흔들며 부채 삭감과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강변하지만, 거리에는 무시간계약(zero hour contract)—언제고 해고가 가능한 노동계약—에 목매는 청년들이 넘치고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은 오늘도 줄어들 줄 모른다. 누가 말했던가, 진정 현실만큼 강한 통계는 없는 듯하다.

영국은 신자유주의의 첨병답게 그 폐해 또한 가장 극명하게 경험하는 나라다. 최근의 금융위기가 보여주듯 원천적으로 불안한 금융을 차치한다면, 오늘날 제조업이 급속히 쇠락하는 영국의 내수를 받쳐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외국인 관광이다.

공공요금과 물가는 터무니없이 높고, 집세는 천정부지로 치솟을지라도, 관광은 갈수록 호황이다. 관광자원의 저력일 것이다. 도처에 크고 작은 공원과 정원들,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박물관, 고색창연한 건축물, 유물들…. 모두 누대에 걸쳐 세밀하게 관리되고 보존되어 온, 그 자체가 복지국가와 더불어 거대한 공공재의 성채를 이룬다. 영국의 정치가 살아서 작동한다는 증거는 공공재의 저 장구한 축조에서 먼저 엿볼 수 있다.

욕먹지 않는 정치, 어디 있으랴만, 그래도 정치에서 급(級)은 엄연하다. 가령 정치가 일정한 역할을 감당해온 나라와 가장 초보적인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차원이 다르다. 정치인의 도덕적 자질을 따지는 일도 마찬가지다. 선진국 정치인의 검증이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도덕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람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 상식화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의 두 거물 정치인이 도덕성의 문제로 사실상 정치생명을 마감했다. 기자로 위장한 인터뷰어에게 자신이 '현직에서 물러나면' 특정 기업에 이러저러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과시성 발언을 한 것이 문제였다. 현직과는 전혀 무관한, 완벽히 합법적인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론과 여론의 집요한 성화에 평생의 정치적 여정을 단번에 중단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영국의 어떤 언론도 '기자 사칭'의 도덕성은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핵심은 한 나라의 공공재를 책임질 정치인의 도덕성이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현직 총리와 야당 당수의 TV 토론도 흥미롭다. 질문자는 송곳 질문으로 유명한 방송앵커 제러미 팩스만이었다. "당신은 아직 내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있다." 한 인터뷰어에게 열두 차례나 같은 질문을 한 전력이 있던 그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승자는? 언론은 이번에도 두 당 대표 중 하나가 아니라 팩스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의 지난 총리청문회와 대비가 단계 단계마다 너무도 극명해서 차라리 허망해진다. 당시 한국 언론은 후보자의 자질을 파헤치는 청문회 통과 여부를 점치는 관전자 내지 해설자에 더 가까웠다는 것이 내 기억이다. 케인스가 대공황으로 민주주의마저 위기에 몰리던 상황에서도 영국정치에 대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영국정치인이 정책적 계몽의 순진한 대상일지언정 도덕적으로는 아직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 숱한 수치와 모멸을 가공할 뱃심으로 버티며 결국 총리직을 거머쥔 당사자도 그렇지만, 할 만큼 했다는 듯 '의연히' 그를 맞이한 우리 정치권 또한 결코 그에 뒤지지 않는다. 그 와중에 한국 정치문화는 뭉텅뭉텅 뒷걸음질 칠 것이다.

경제도 정치도 한국에선 정말 독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그렇게 부와 권력을 움켜쥔 독한 사람들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유유상종의 세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솔직히 그런 내 신세가 먼저 딱하다.

서재, 세상을 말하다

조희룡의 벼루가 있는 서재

박 철 상
문학박사·광주은행 영업지원부장

벼루에 먹을 갈아 글을 썼던 조선시대 문인들의 벼루 사랑은 남달랐다. 우봉(又峰) 조희룡(趙熙龍,1789~1866)은 대표적이다. 그는 양반가 출신이 아니다. 19세기 중인문화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50년 동안 추사 김정희를 스승으로 모시며 추사체를 가장 핍진하게 구사했다. 조희룡은 벼루에 미쳐 살다간 사람이었다. 서재 이름도 '백 두 개의 벼루가 있는 시골집'이란 의미로 '백이연전전려(百二硯田田廬)'라 하였다.

그의 서재 이름은 청(淸)나라 서화가인 금농(金農,1687~1763)과 연관이 있다. 금농에겐 독특한 기호가 하나 있었다. 바로 벼루를 모으는 일이었다. 그는 시와 그림에 뛰어났다. 친구들은 그에게 돈을 모아 전답과 집을 장만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했다. "나는 가난하게 살 운명일세.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벼루를 짊어지고 사방을 떠돌며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팔아 돈이 생기면 벼루를 구입하였다. 마침내 백 두개의 벼루를 수집하자 그는 자신을 백이연전부옹(百二硯田富翁)이라 불렀다. 백 두개의 벼루가 그에게는 밭과 같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부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그런 것이다.

그가 벼루를 좋아했던 것은 염량세태 속에서 인심은 변해도 벼루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벼루는 군자를 가깝게 할 수 있고 소인을 멀리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벼루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겼던 것이다. 조희룡은 바로 금농의 별호인 백이연전부옹을 차용하여 벼루를 좋아하는 자신의 서재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다. 백두개의 벼루가 있는 시골집이야말로 평생 벼루에 미쳐 살았던 조희룡의 서재 이름으로는 가장 알맞은 이름이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벼루의 용도는 아주 단순하다. 먹이 물에 잘 풀어져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벼루에는 단순히 그런 기능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성질이 따듯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문인들은 그런 벼루의 성정을 본받아 자신의 성품을 수양하는 도구로 삼기도 했다. 또한 벼루는 아무리 갈아도 닳아 없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본받으면 장수할 수 있다고 여겼다. 조희룡은 바로 이런 벼루의 성질을 좋아했다.

그러나 조희룡의 벼루 수집은 유배를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김정희와 권돈인이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안동김씨 가문과 공방을 벌인 끝에 유배를 떠나게 되었는데, 조희룡도 김정희와 권돈인의 심복이라는 이유로 전라도 임자도에 유배되었던 것이다. 이후 유배에서 풀려나 서울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 있던 그 많던 벼루는 모두 흩어진 뒤였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렇게 아끼던 백두개의 벼루가 모두 사라졌지만 조희룡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제는 젊은 시절 벼루를 찾아 헤매던 열정도 모두 사라졌고, 평생을 모았던 벼루도 모두 사라졌지만 조희룡에겐 어떤 미련이나 안타까움도 없었다. 그래도 사람을 만나 벼루이야기만 나오면 힘든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의 눈앞엔 벼루가 남아 있지 않았지만 평생 가슴속에 담아둔 벼루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청나라의 금농(金農)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속에 백 두개의 벼루를 품고 사는 부자였던 것이다.

조희룡은 누구보다도 매화를 잘 그렸다. 매화가 활짝 필 때면 조희룡은 그토록 아끼던 벼루를 꺼내 먹을 갈았을 것이다. 그의 서재 '백이연전전려(百二硯田田廬)'는 우리에게 말한다. 사람은 살면서 눈엔 보이지 않지만 가슴속엔 늘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조희룡의 벼루처럼.

기 고

동구에 다시 찾아 온 봄

임 영 일
광주 동구청장 권한대행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찾아온 봄이 필자에게는 반갑기만 하다.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필자는 두보(杜甫)의 시(時) 한 대목을 떠올린다.

"강물이 짙푸르니 새는 더욱 희게 보이고/ 산이 푸르니 꽃은 타는 듯 더 붉고나/ 올 봄도 또 이렇게 휙 지나가버리니/ 나는 언제쯤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江碧鳥逾白'(강벽조유백)으로 시작하는 이 시는 전란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란 읊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듯하다. 필자는 "올해 열심히 힘 쏟아 노력한다면 푸르른 강물과 붉은 꽃이 아름다운 고향의 봄을 곧 맞을 수 있겠구나"하는 뜻으로 해석해본다.

올해는 KTX호남선 개통을 시작으로, 하계 U-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충장축제 등 침체된 동구를 부활시킬 굵직한 대사들이 준비돼 있다. 지역발전의 대전환을 노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아 동구는 '광주의 종가'라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700여 공직자와 11만 구민 모두가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구도심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꾸고 쇠락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억 규모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현재 문화전당 개관에 따라 몰려올 관광객들을 위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을 비롯한 무등산·문화전당·충장로·대인시장을 아우르는 관광코스 개발,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각종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내남·용산·선교지구 도시개발, 학3구역을 비롯한 17개 지역의 도시재개발, 계림8구역 세계수영선수촌 지정 등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또 이러한 일련의 외형적 사업의 내실화 및 소통과 화합의 행정구현을위하여 필자는 몇가지 내부 역점사업을 추진 중이다.

첫째 직원들과 함께 구정 현안을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월 2회 이상 민원 현장에서'직무연찬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둘째 부서장에게는 현장문화를 느끼고 아이템을 채워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필링엔데이'(Feeling & filling)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도 챙기고 사랑도 실천하며 공공요금도 절약하는'사랑의 건강계단'이 설치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1개 동(洞)을 선정, 전직원이 현장을 방문 부서별 업무특성을 살려 현장 민원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처리하는'이동 구청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에게는 현재 민관의 하나 된 열정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심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힘을 합쳐 올해를 잘 대비한다면 문화의 힘과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동구를 머지않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혁신도시 활성화 막는 분양가 인상 안 된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의 2차 분양을 놓고 전남도와 LH 등 시행사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분양가를 높이려는 시행사 측에 전남도가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격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5일 빛가람혁신도시의 산학연 용지 2차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 인상을 계획 중인 시행사에 1차 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LH 등이 ㎡당 분양가를 38만7000원으로 설정해 1차 분양 시의 가격(35만1000원)보다 3만6000원을 올렸기 때문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2차 분양 용지는 시행사 측이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이 입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지를 세분화해 조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남도는 필지를 나누면서 그 비용을 입주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혁신도시 중 2·3차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하는 과정에 가격을 올린 곳은 없다는 것이다. 또 갑작스런 분양가 인상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한전의 에너지밸리 사업과 관련해 잇따른 투자협약이 성사되면서 활성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도 시행사 측이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클러스터 2차 분양은 필지를 너무 크게 잡아 팔리지 않았던 만큼 조성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하면 올리지 않는 게 옳다고 본다. 특히 시행사의 가격 인상은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행사 측은 인상안을 철회하고, 1차 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용지 분양에 나서야 한다. 혁신도시가 이제 제자리를 잡으면서 활성화되는 마당에 분양가로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두고두고 비난을 사게 될 것이다. 시행사 측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

경찰과 오락실 업주의 검은 고리 왜 못 끊나

경찰관이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사건이 또 일어났다. 불법 성인오락실이 경찰 비리의 온상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엊그제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김 모(50)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고 업주들에게 오락실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로 단속정보를 건네받은 업주들은 단속 날 일시적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한다. 업체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루 최고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7개월간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범행 은폐를 도운 혐의로 변호사 최 모(42) 씨도 적발했다. 변호사 최 씨는 업주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1000만 원을 받고 법률 자문 명목으로 '바지사장'에게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은폐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변호사는 범행 은폐를 돕고, 조직폭력배 출신 업주는 부당 이득을 취하고, 실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광주·전남 지역에서 경찰과 오락실 업주 간 유착 비리는 그동안 '연례 행사'처럼 잇따랐다. 이 때문에 불법을 일삼는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빽'(아는 경찰관)만 든든하면 '돈 버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닐 정도였다.

경찰이 업소와 유착돼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게 된다. 따라서 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관에 대한 감찰의 강도를 더욱 높여 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벚꽃엔딩

지난 주말, '천년고찰' 구례 화엄사 인근 지장암내 올벚나무(천연기념물 38호)가 활짝 꽃을 피웠다.

다른 벚나무보다 일찍 꽃을 피우는 올벚이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는 오랑캐에게 유린당했던 옛일을 생각하며 전쟁에 대비하고자 벚나무 심기를 장려했다. 벚나무 목재가 단단해서 창칼의 자루와 마구(馬具)로 사용되고, 나무껍질은 활 재료로 쓰이는 등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올벚나무는 암자 뒤편 넉넉하지 못한 터에 그렇게 뿌리를 내렸다. 이후 300여 년이 지났지만 고목은 여전히 화사한 꽃잎을 피우고 있다.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는 탓에 벚나무는 번번이 '왜색'(倭色)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조선을 강탈한 일제는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쌀을 편리하게 실어가기 위해 1908년 10월 전주와 군산을 잇는 신작로를 닦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인 '전군가도'(全群街道)를 건설한 후 일제는 도로변에 벚나무를 식재했다.

하지만 지장암 올벚나무를 비롯해 이맘때 이산 저 산에서 버즘피듯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는 산벚꽃이 증명하듯이 벚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 강토에서 자생해왔다.

미국 동양미술 사학자인 존 카터 코벨(1910~1996년)은 저서 '부여기마족과 왜(倭)'에서 미국 워싱턴D.C 제퍼슨 기념관 연못가에 심어진 일본 벚나무가 실제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건너간 벚나무라고 말한다. 1912년 도쿄 시장이 일본 벚나무를 워싱턴에 선물로 보냈는데 벌레가 먹어 다 죽었다. 그러자 몇 년 후 일본은 제주도에서 캐온 새품종 벚나무를 다시 선물했다는 이야기다.

하룻밤 사이 비바람에 벚꽃이 졌다.

밤새 벚나무 밑에서 '꽃비'를 맞은 차들이 꽃잎을 차창에 붙인 채로 도로를 오간다. 빠르게 온 만큼이나 잠깐 사이 더 빠르게 봄날이 간다. 외국을 잠시 다녀온 한 선배는 "잠시 눈을 돌렸더니 어느새 벚꽃이 다 졌다"고 푸념한다.

거리에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이 흐른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우 둘이 걸어요…". 이렇듯 꽃잎은 지지만 대신 파릇한 새잎이 돋아나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한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